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제231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조동주(편집국)
- 정지영(편집국)
- 이미영(미래전략연구소)
- 이원택(AD본부)
- 손수영(마케팅본부)
- 신강혁(문화사업본부)
- 이진걸(경영지원국)
- 남형주(재경국)
- 장원재(뉴스테니얼본부)
- 이기원(편집본부)
- 신정호(제작본부)
- 김윤수(보도본부)
- 강태연(전략기획본부)
- 김혜성(콘텐츠사업본부)
- 김우준(경영지원본부)
- 김민지(동아E&D)
- 장경국(동아닷컴)
- 한걸(채널A비엔씨)

(편제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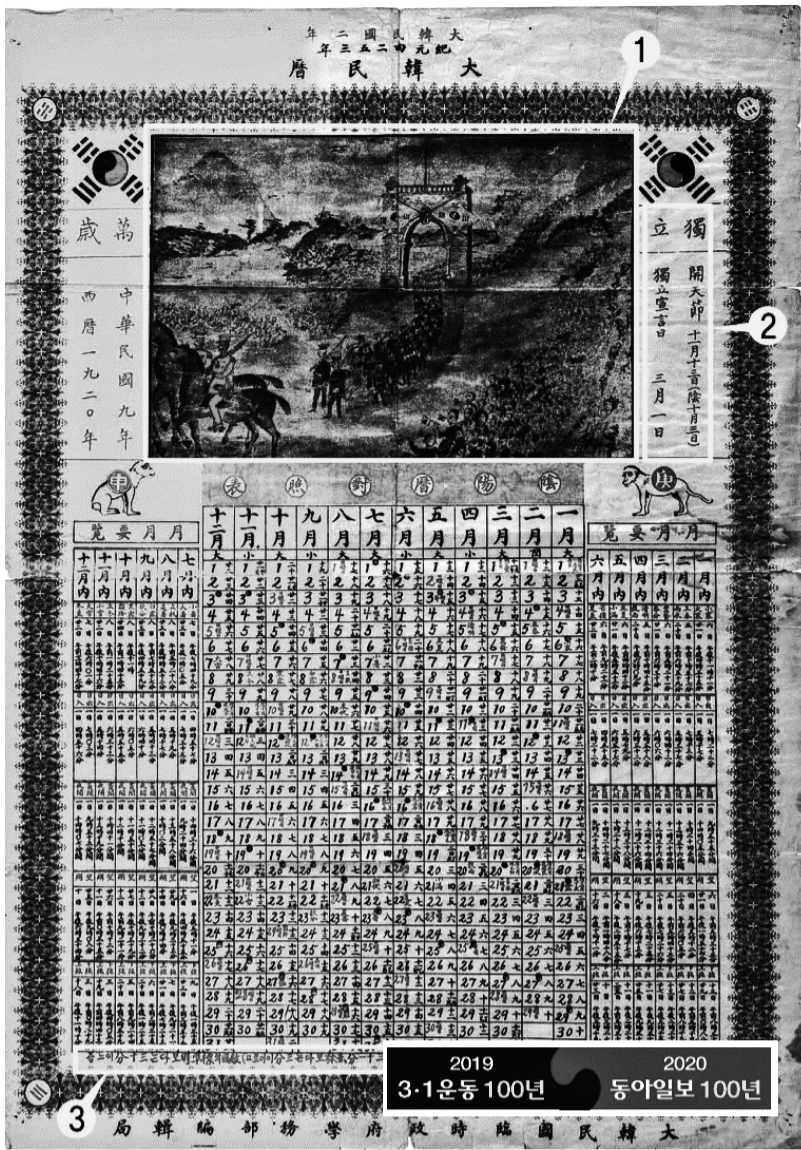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동아미디어그룹에는
조화로우미 있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은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리는 풍성한 콘텐츠로 2020 동아일보의 100년을 이어갑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며 세상을 바꾸는 동아일보 보도와 채널A 신규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1,2theC스워드 새내기 조직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에 나서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아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사진=편집국 사진부 김재명

민족과 함께 100년, 동아가 그 정신을 잇는다

3.1운동 100주년 맞아 역사의 현장 등 생생하게 되살려 학술대회-다큐 등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

3·1운동을 뿌리로 탄생한 동아일보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집중 조망에 나서고 있다.

‘2019 3·1운동 100년, 2020 동아일보 100년’이라는 컷 아래 관련 기사가 지면에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연재 중인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시리즈는 각 지역의 3·1운동을 소개하면서 100년 전 만세시위를 오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리고 있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0년 ‘대한민국(달력) 유일본 발견’이나 ‘임정 국새(임시의정원 관인)가 100년 유풍을 끝내고 한국에 기증된다’는 소식 등 관련 단독 기사도 잇따랐다.

3·1운동 50주년(1969년)과 70주년(1989년)에 동아일보가 학술 논문집을 간행하고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등 학계

의 3·1운동 연구에 크게 기여한 역사는 100주년인 올해에도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2월 27일 일민미술관에서 3·1운동 100주년 학술회의 ‘백년 만의 귀환: 3·1운동 시위의 기록’을 주최했다. 현존 자료를 망라해 새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 연구가 발표되는 학술회의다. 3·1운동 연구사에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이 DB 자료를 활용해 ‘3·1운동 역사의 현장 디지털 정보관’(가제)을 구축하고 3월 1일 동아닷컴을 통해 공개했다.

4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민주·공화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와 동아시아 독립운동’을 주제로 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동아일보가 후원한다. 학술회의에서 영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우수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한다. 언론사(史) 연구 권위자인 정

진석 한국의국어대 명예교수도 3·1운동 당시 지하 신문과 이후 민족 언론 동아일보의 탄생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안영배 논설위원도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채널A도 2월 7일부터 ‘역사의 현장’이라는 타이틀로 관련 기획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다. 선봉에는 해외 특파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첫 회로 100년 전 도쿄 한복판에서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을 찾았는데, 김범석 특파원이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학생들 법정 투쟁을 도운 인권변호사의 후손을 단독 인터뷰했다.

국내 만세운동과 달리 육탄항쟁을 노선으로 제시한 ‘무오독립선언’의 발자취는 권오혁 베이징 특파원이 취재했다. 고종도 연구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린성 통징 허룽시등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살пы이 훑었다. 권 특파원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 황량한 벌판을 누비다 보니 100년 전 독립군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은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황규락 특파원이 100년 전 제1차 한인회의가 열렸던 ‘리틀극장’, 미국인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던 시가지, 미국 독립기념관의 모습과 후손들의 회고를 생생히 전했다.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의 불꽃이 타오른 현장을 다시 조명했다. 독립선언문이 인쇄된 보성사, 3·1 운동 거사를 논의했던 서울 중앙고 숙직실, 당일의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 생생한 탑골공원, 일제의 악랄한 학살이 진행된 제암리 모습 등을 전하게 된다.

3월 중순부터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리포트를 제작하는 것으로 특집리포트를 일단락된다. 하지만 그 날의 생생한 기록에 대한 취재는 계속될 것이다.

이밖에도 채널A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8월 14일 중국 상하이 세기광장에서 ‘100년의 약속’(가제) 콘서트를 열고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예정이다.

편집국 문화부 조종엽
보도본부 보도제작팀 하태원

“참가자 몰려 조기 마감” 서울국제마라톤 3만 8500명이 뛰다

여성이 25% 차지... 외국인 3700명 이상, 1년새 42% 늘어 외국인·여성 참가자 집중 공략

3월 17일 열리는 201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0회 동아마라톤대회는 개막 전부터 신기록을 쏟아냈다.

대회 참가 접수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인 2월 20일 신청자 수 4만 명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됐다. 이 중 3만 8500명(풀코스 2만 명, 10km 1만5000명, 42195릴레이 3500명)이 티켓을 얻었다. 단일 마라톤대회에서 3만8500명

이 뛰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여성과 외국인 참가자가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은 작년보다 32.9% 증가했다. 2014년 10km 코스를 신설한 것이 여성 참가자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됐다. 풀코스만 있던 시절 8%에 불과했던 여성 참가자는 전체의 4분의 1인 25%로 늘어났다.

문화사업본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참여도 집중 공략했다. 유명한 해외 마라톤 포털인 ‘월드마라톤즈’를 통해 적극 홍보했다. 포털을 통해 참가자 신청도 받았다. 비용 결제까지 간편하게 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 롯데 JTB 여행사를 접촉해 마라톤 참가에 숙박을 더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덕분에 동아마라톤을 뛰는 외국인 참가자는 지난해 2551명에서 3765명으로 늘었다. 마라톤에서 관광 한류의 가능성을 찾았다. 외국인 증가율은 41.9%. 추후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젊은 층의 참여도 늘었다.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처음으로 30대 참가자 비율이 가장 많아졌다. 30대는 전체의

24.1%를 차지해 40대(24.0%)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50대는 23.4%, 20대는 20.8%이다. 그동안 달리기 문화를 주도했던 세대가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30대 참가자는 44.9%이며 10대(1.3%)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10km 부문은 약 70%가 청년층이다.

10년 연속 국내 유일할 골드라벨 마라톤 대회인 서울국제마라톤은 동아일보 창사 10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국제육상연맹(IAAF)이 신설하는 플래티늄라벨 획득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박형준

“사회적 약자들의 동앗줄”... 세상을 바꾸는 동아일보

‘중랑구 모녀 사건’ 단독 보도 후 월세 취약층 전수조사 미등록 아동 하은이 기사 이후 ‘출생 통보제’ 도입 추진 신예기 기사 영향 ‘가족 호칭’ 여가부 권고안 5월에 나올 듯

동아일보가 사회적 약자들의 가려진 실태와 우리 사회의 낡은 관습을 집중 조명해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올렸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다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중랑구 저소득층 모녀’,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고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뻔했던 ‘하은이 사건’이 최근 본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또 참사 위험에도 방치되고 있는 방탈출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실태, 가족 구성원 명칭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 역시 본보의 문제제기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동아일보는 1월 22일 보도한 ‘매달 손에 쥘 건 25만 원 뿐... 또 드러난 월세방 모녀의 비극’ 기사에서 대인기피증을 앓는 50대 딸이 80대인 치매 노모를 돌보는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 원에 불과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반 지하 주택에서 박모 씨와 큰딸, 작은 딸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여론은 공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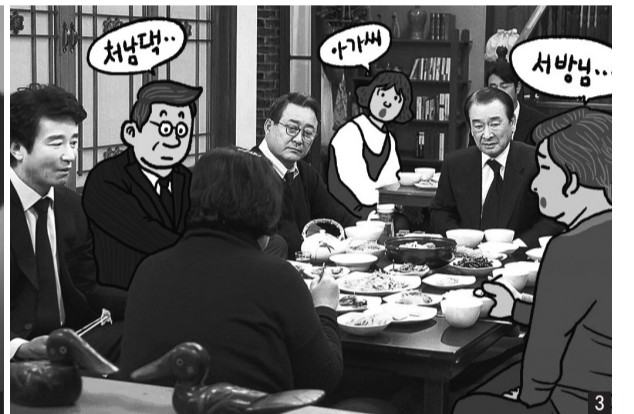
‘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1월 23일자)’ 보도 역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그림자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렸다. 본보는 이 사례를 통해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지우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병원에서 직접 공공기관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

는 ‘출생통보제’를 제시했다. 또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수갑 치는 방탈출카페 불나면 탈출구가 없다’ 보도를 통해 최근 유행하는 신종업소가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있지 않아 소방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있다는 점을 처음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초 풀란드의 한 방탈출카페에서 불이 나 여학생 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보도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어색한 친인척 호칭’ 보도는 당시 큰 화제가 됐다. 남편의 가족은 ‘님’자를 붙여 높이고, 아내의 가족은 하대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보도 이후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설문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6.8%)은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처럼 남편의 형제들만 높이는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성(93.6%)은 물론 남성도 절반 이상(56.8%)이 호칭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보의 보도에 응답해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중랑구는 16개 동에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전수조사 지침을 내렸다.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 후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가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비공개 심의에서 본보 보도를 거론하며 ‘출생통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청은 방탈출카페 등 신종 업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탈출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할 계획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실태를 다뤄 세상을 바꾼 동아일보 보도 중 ‘중랑구 저소득층 모녀’ 기사(1), ‘하은이 사건’ 기사(2)와 함께 소개된 일러스트. (1), (2) 디자인을 맡았던 편집국 뉴미디어팀 김수진 차장은 “모녀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풀려 있는 느낌과 등을 돌린 부모 사이에 외롭게 버림 받아 투명하게 사라져가는 아이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족들의 호칭 문제를 드러마의 한 장면에 더해 소개한 ‘신예기’ 보도(3).

이다. 여성가족부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4월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에서 가족 간 호칭 문제를 보도한 이후 불평등한 호칭을 바꾸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또 국립국어원과 학계 의견을 종합해 오는 5월 최종 권고안을 내고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편집국 사회부 김재희 정책사회부 강은지

스포츠동아, 충정로 시대 열었다

자회사 스포엑스컴과 공간 공유로 ‘시너지’ 기대

스포츠동아가 충정로 시대를 열었다. 지난 2월 1일 스포츠동아는 광화문 미디어센터에서 충정로 사옥 10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스포츠동아는 이에 맞춰 디지털과 동영상 중심의 제작 문법을 확 바꾸는 등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이전에 앞서 충정로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오래된 사무집기를 교체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사용공간은 기존(전용 154평) 대비 약 40평이 늘어났고(전용 196평), 회의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인터뷰룸 2곳도 새롭게 구축해 취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충정로 사옥 3층에 있던 자회사 스포엑스컴도 10층으로 통합 이전했다. 스포엑스컴은 스포츠행사를 기획하고 대행하는 곳이다.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츠동아와 업무 시너지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엑스컴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스포츠동아에 홍보하고, 스포츠동아가 주관하는 행사를 스포엑스컴에서 대행하는 등 협력이 긴밀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를 위해 10층 내 공유회의실을 마련했다. 공간 가치와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공유 공간 임대료도 분담함으로써 비용도 일부 절감했다.

스포츠동아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다. “회의실, 인터뷰룸 공간이 늘어나 업무

하기 훨씬 편해졌다” “실내가 넓어져 쾌적하고, 새 건물에서 일하는 기분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스포츠동아 창간 10년에 이어 올해 업무 공간 이동까지 스포츠동아 직원들은 충정로 시대의 출범을 사실상 제2의 창간으로 받아들이며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동아는 올해부터 ‘디지털 퍼스트’ ‘영상 퍼스트’ 전략으로 신문 제작 중심의 사고방식과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모든 기사는 디지털로 먼저 출고하고 내용도 디지털·모바일 친화적 스타일로 바꾼다. 기자의 전문성을 앞세운 콘텐츠를 강화한다. 취재 분야도 스포츠, 연예 중심에서 탈피하고 전 사원의 멀티플레이어화에도 도전한다.

이미 지면보다 온라인으로 선 출고되는 기사량이 많이 늘었고, 크리에이터 스타 기자 육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충정로 사옥 이전으로 더욱 가까워진 동아닷컴과의 협업도 강화해 기사 노출을 더욱 늘리려 한다.

한편 스포츠동아가 기존에 사용하던 광화문 8층은 채널에이 편집본부와 동아일보 편집국 청년드림센터가 사용한다. 산뜻한 분위기로 새 단장해 근무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뉴미디어전략팀 양형모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 이진걸

동아일보, 아사히신문과 포토아카이브 제휴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포토아카이브 모습. 시험 판매용으로 올린 동아일보의 사진이 보인다.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은 사진위탁판매에 대한 세부 조율을 끝내고 3월 초 계약을 맺기로 했다. 동아일보 사진을 아사히신문 포토아카이브에 올려 일본 미디어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다. 판매단가는 아사히신문이 자사(自社) 사진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요금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방송사가 본방송에 1회 사용할 때 1만9440엔(약 19만7000원), 신문사가 종이신문에 1회 게재할 때 2만1600엔이다. 잡지사는 발행 부수와 사진 크기, 게재 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모두 1회 사용 기준이고, 재사용할 때는 추가 금액을 받는다.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은 매일 말 사진 판매 현황을 공유하고, 판매금을 일정

비율로 나눈다. 동아일보는 저작권료 몫을 가져간다. 아사히신문은 시스템 구축 및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간다.

양사는 앞서 약 1년 동안 동아일보 사진을 시험 판매했다. 정치 및 남북관계 관련된 사진이 많이 팔렸다. 한강에서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는 사진도 판매했다. 구매처는 대부분 일본 방송사였다.

아사히신문 측은 “4월부터 아사히신문 포토아카이브에서 동아일보 사진에 대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럼 매출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등 특별 이벤트가 생길 때 별도로 ‘이벤트 코너’를 만들기로 했다. 편집국 동경지사 박형준



스포츠동아 직원들이 충정로 사옥 10층에 마련된 스포츠동아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섬세한 드라마... 리얼리티 예능... 도약하는 채널A

새 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박하선 등 주연 확정 '굿피플' 강호동-이수근 진행 확정

올 상반기 방영 예정인 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상반기 방송예정인 신규 예능프로그램 <굿피플>도 강호동-이수근 콤비가 MC로 확정되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

주인공 라인업 확정 <오세연> 초입기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은 금기된 사랑 때문에 흥역을 겪는 어른들의 성장 드라마다. 섬세한 필력을 자랑하는 유소정 작가와 세련된 연출력의 김정민 감독이

손을 잡았다. 배우 박하선과 이상엽, 조동혁, 예지원이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하선은 여자 주인공 손지은 역을 맡았다. 손지은은 공무원 남편을 따라 온 소도시에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수하고 조용한 성격의 여성이다. 이상엽은 순수한 대안학교 생물 교사 윤정우 역을 맡았다. 윤정우는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남자. 청정한 소년미가 넘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현실감이 없는 인물이다. 지은이 정우를 만나면서 폭같이 반복되던 일상에 변화가 시작된다.

박하선의 이웃으로 등장해 색다른 '워맨스(워먼과 로맨스를 합친 신조어)'를 보여줄 또 다른 여자 주인공 최수아 역은 예지원이 맡았다. 출판사 대표의 아내이자 여전히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전업주부를 연기한다.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그녀는 평일 오후 3시의 일탈을 통해 삶의 갈등을 해소한다. 예지원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화가 도하윤은 배우 조동혁이 연기한다. 5년간의 슬럼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이혼남인 그는 수아를 만나면서 그녀를 뮤즈 삼아 지독한 슬럼프를 끝내고 그림에 생기를 얻는다. 사회적 규범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

네 남녀의 치명적인 로맨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 만큼,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연기로 사랑 받아온 배우들의 연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하선은 결혼 이후 3년간의 인방극장 복귀작이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출연진들의 한층 짙어진 감성과 연기력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완성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의 MC로 확정된 강호동과 이수근.

“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은 금기된 사랑 때문에 흥역을 겪는 어른들의 성장 드라마



상반기 방영 예정인 채널A 새 드라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의 남녀 주인공으로 배우 이상엽과 박하선, 예지원, 조동혁(왼쪽부터 시계방향)이 확정됐다.



일본 원작 드라마 재탄생 '기대'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은 2014년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 <메꽃, 평일 오후 3시의 연인들>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당시 드라마는 두 여자의 도발적인 러브스토리와 섬세한 심리묘사, 감각적인 영상미로 일본 '제82회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 드라마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방영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드라마의 인기는 소설과 영화로도 이어졌다. 특히 3년 후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게 흥행했다. 한국에서는 웹툰 <메꽃-오후3시의 연인들>로 각색돼 마니아층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이 일본 원작의 탄탄한 구성 위에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을 더해 깊고 진한 한국형 멜로 드라마로 어떻게 재탄생될 지도 관심사다.

강호동-이수근 콤비 <굿피플> 호흡

<신입사원 탄생기 - 굿피플>도 따뜻한 봄을 맞아 시청자들을 찾아 예정이다. <굿피플>은 변호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한 달 동안 로펌에서 인턴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을 담는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초년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엿보고 그들을 응원하고자하는 취지다. 최근 강호동과 이수근이 <굿피플> MC를 맡기로 확정됐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던 강호동-이수근 콤비의 호흡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방송을 확정하고 제작에 한창이다. 1월 14일부터 시작된 사무실 촬영은 최근 종료됐다. 고급스런 가구들이 놓인 로펌 사무실에 출근한 인턴 변호사들 8명은 각각의 미션들을 수행해냈다. 이어 강호동-이수근 콤비와 패널들이 함께하는 스튜디오 촬영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에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인턴들의 긴장과 설레임의 순간들이 섬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편성본부 콘텐츠키무키이케이션팀 안주영·노수아

인촌기념회, 41명에 장학증서 수여

지금까지 3820명에게 장학금 지급

인촌기념회가 2019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29명과 고교생 12명 등 총 41명에게 2월 27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선발된 장학생 17명과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오세정 인촌장학생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훈 이사장은 “인촌 선생은 재산을 기업과 학교에 기부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해방 이후 젊은이들을 키우며 민족의 저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훌륭한 젊은이 양성과 민족

저력을 키우는 일이 인촌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촌기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운동을 벌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67년부터 장학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대학생과 고교생 38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 모임인 인촌장학생동문회는 회원들이 모금한 장학금 500만 원을 이날 인촌 기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인촌 선생 탄생 120주년인 2011년부터 장학금을 모아 장학사업에 동참해오고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현수



2월 27일 인촌기념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WANNA ONE 512전' 3주 새 4만 명 다녀가



동아일보와 스웬터테인먼트가 공동주최한 'WANNA ONE 512전'이 용산 아이파크몰 상상공간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다(1). 개막 3주 만에 4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전시에는 워너원 멤버들의 소장품과 사진은 물론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 매핑 등 최첨단 기법으로 구현한 공연 영상을 만날 수 있다. 워너원 멤버인 김재환, 윤지성(2)과 하성운(3)이 방문해 인스타그램 인증샷을 남겼다.

“우리는 1,2the스쿼드... 디지털 문법을 통-번역 헤드릴게요”

‘팀’ 대신 ‘스쿼드’... 유연한 운영으로 창조적 협업 목표
“디지털 프로젝트의 기획 제작단계서 조력자 역할 할 것”
새내기들의 입사 세 달 소감

입사한지 이제 세 달 째. 이제 막 얼굴을 익힌 동료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다.

“너희 팀은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야?” “너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아, 전화 통화를 할 때 우리 팀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다.

드디어 지면을 통해 우리 이름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됐다. 1월 경영전략실에 신설된 1theC, 2theC스쿼드는 각각 ‘원더씨’ ‘투더씨’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C’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도 많다. C는 콘텐츠(Contents) 혹은 크리에이티브(Creative), 협업(Co-work)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기존 영역 구분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작명이라고 한다. ‘팀’이라는 명칭 대신 ‘스쿼드’를 선택한 것도 때에 따라 합했다 나뉘었다 하는 유

연한 운영으로 창조적 협업을 이루겠다는 취지.

우리 1theC스쿼드 구성원 중엔 ‘능력자’가 많다. 예능PD 20년차 박세진 차장을 필두로 디지털 콘텐츠에 특화된 인재들이 모였다. 신준모 과장은 재치 있는 콘텐츠로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를 순식간에 5000명에서 80만 명으로 늘린 경험이 있다. 정세교 매니저는 키즈 유튜브 채널 론칭 네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500만 회를 달성하기도 했다. 영상 제작 경험이 풍부한 인턴 서정혁 씨도 합류했다. 나는 MCN 업체 공동 창업을 하고 유튜브 방송 기획, 출연 했던 경험을 살려보고 싶다.

쟁쟁한 팀원들과 함께 우선 ‘자체 대표 콘텐츠’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또래가 좋아할 만한 웹 드라마나 바이럴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 제작 등 다



신한솔 매니저는 2018년 2월부터 글로벌을 타깃으로 유튜브 영어 방송을 시작해, 세 달 만에 1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도 글로벌 팔로워 2만 명을 모았고, 인터넷 방송 누적 조회수는 140만 회에 이른다. 신 매니저의 틱톡 화면 캡처.

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구성원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 실험적인 콘텐츠도 선보이려 한다. 두 스쿼드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까 기대 된다.

경영전략실 1theC스쿼드 정현지

이제 우리 팀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아셨을 테니 지금부터는 ‘원투더씨(1·2theC)스쿼드’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볼까 한다.

사실 아직도 1·2theC스쿼드의 미션(mission)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어렵다. 한 마디로 정리하려면 ‘동아미디어그룹에 디지털 언어를 장착하기 위해 태어난 조직’이라고 해야 할까. 기존 미디어 콘텐츠를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통하도록 바꿔주는 ‘번역가’의 역할이랄까. 다양한 계열사와 조직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프로젝트의 기획 제작 단계에서 조력자 역할을 맡으려 한다. 프로토 타입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새 길을 내어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내가 속한 2theC스쿼드를 이끄는 한 정연 차장은 채널A 출범 직후 메인뉴스

앵커를 맡았던 방송기자 출신이다. 권기범 기자는 동아일보 페이스북에서 단일 콘텐츠 최대 도달 수(217만 명)를 기록하기도 했다. 채널A비엔씨 인스타그램 관리를 하며 감각을 뽐냈던 안채원 매니저는 비주얼 브랜드 전문가답게 벌써부터 주요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나는 유튜브와 틱톡에서 전 세계 구독자를 상대로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다.

프로젝트마다 동아일보 편집국 또는 채널A 보도본부 및 제작본부, 동아닷컴 등과 협업할 수 있어야 해서 두 스쿼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부터 치웠다.

그 다음으로는 시끌시끌하게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모일 때마다 빵빵 터져서 회의실 방음이 걱정될 때가 많다. 알파 버전의 영상을 보다가 전 팀원이 엄숙한 19층 한가운데서 빵 터진 적도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디지털 콘텐츠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는 일을 맡게 됐다고 생각하니 떨린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2theC스쿼드 신한솔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면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거 녹화 되는 건가요?”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은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 설치된 하얀색 박스를 접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텔레비전처럼 내 모습이 비춰지는 하얀색 박스의 정체는 <DAMG 크리에이터 Acceleration> 홍보 부스.

동아미디어그룹은 신선한 콘텐츠 아이템을 가진 예비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간 아이디어 공모에 돌입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콘텐츠 아이디어라면 주제나 장르에 제한이 없다.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심층 미팅을 거쳐 3월 27일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니(Genie)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kaki@donga.com 또는 han77sol@donga.com)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개인 또는 팀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경영전략실 1·2theC스쿼드 팀과 함께 시범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니(Genie)에 올린 공지사항을 참고. 경영전략실 2theC스쿼드 권기범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층에 설치된 <DAMG 크리에이터 Acceleration> 홍보 부스.



정현지 매니저는 대학 시절 유튜브 구독자가 24만 명에 이르는 ‘연고티비’에서 2016년부터 ‘연고대답’ 등 교육 콘텐츠를 기획, 촬영, 편집까지 혼자 해냈던 경험을 발판삼아 MCN을 공동창업하기도 했다. 사진은 정 매니저가 출연한 유튜브 화면 캡처.

파리-카이로-실리콘밸리 특파원 선발

베이징 특파원은 기간 연장

신방경직 특파원 모델을 구축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 여름 새로운 얼굴을 해외 현장에 투입한다.

프랑스 파리 특파원(임기 3년)으로 부임하는 김윤종 기자(편집국 정책사회부)와 임기 1년의 단기 특파원으로 선정된 이세형(콘텐츠기획본부), 박준희(보도

본부 편집1부) 기자가 그 주인공. 김 기자는 동정민 특파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유럽은 물론 중동,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글로벌 현안을 다루게 된다. 이 기자와 박 기자는 각각 서동일 이집트 카이로 특파원, 황규락 미국 실리콘밸리 특파원의 뒤를 이어 파근파근한 현장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 중국 베이징 단기특파원으로 부임해 북·중 접경 지역 현장 등 취재에서 굵직한 단독 기사를 쏟아낸 권오혁 특파원은 내년 여름

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동아미디어그룹은 10명(장기 6명, 단기 4명)의 특파원을 각지로 투입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신방경직 시스템이 대부분 정착돼 특파원들은 탄탄한 해외 취재 네트워크와 방송 인프라를 토대로 다채로운 신문 기사와 방송 기사를 내놓고 있다. 신입 특파원들은 파견 전 역량강화 교육과 특파원 기사 작성, 방송 교육 등을 받는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신진우

해외특파원 포부



김윤종 / 파리 특파원
“저출산 고령화를 미리 겪은 유럽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국제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이세형 / 카이로 특파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 현장의 뉴스를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전하겠습니다.”



권오혁 / 베이징 특파원
“1년 전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준희 / 실리콘밸리 특파원
“미국 첨단 산업의 요람에서 차별화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 학교



김소연 / 채널A 경영전략실 경영기획팀

- ① 채널A에 입사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영기획팀의 막내로서 항상 뒤편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 ② 요즘 유튜브로 마카롱 만드는 것을 즐겨 봅니다. 언젠간 저도 학원에 다녀서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해 제가 만든 디저트를 팀원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기대해주세요~
- ③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도담촌 향아리닭갈비,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주)동아에드넷이 지난해 11월 충청로 동아일보 사옥 근처에서 오픈한 ‘도담촌향아리닭갈비’ 매장이 성공적으로 영업 중이다.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몰에 이어 푸드 비즈니스에 진출한 것, 푸드 비즈니스는 처음이기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됐다. 문을 연 지 두 달이 조금 넘은 신규 매장이지만 신선한 재료와 푸짐한 양, 향아리닭갈비만의 레시피로 단골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주)동아에드넷 관

계지는 “SNS에 ‘닭갈비 역사를 다시 쓰는 #향아리 닭갈비’ 등 맛과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의 후기가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채널A와 식객촌의 합작법인인 착한식당은 송파파크하비오 지하 1층에 먹거리X파일 착한식당에 선정된 10개 식당을 한자리에 모아 영업 중이다. 도담촌은 이중 높은 매출을 올린 향아리닭갈비막국수와 MOU를 맺고 ‘도담촌향아리닭갈비’ 충청로점



을 열었다. ‘도담촌향아리닭갈비’는 동아일보 충청로 사옥 뒤편(서대문구 경기대로 26-22 1, 2층)에 있다. 주 6일(일요일 휴무)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예약 및 문의는 1599-5155) 마케팅본부 신사업개발팀 박상규